

# 조선시대 성곽 '여수 석보' 사적 지정

### 육지~해안 잇는 요충지 역사·지리적 중요 가치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수 석보' (石堡=돌로 쌓은 성)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일대 '여수 석보'를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523호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15세기 중반에는 주로 산지에 성곽을 축조했으나 여수 석보는 평지에

쌓은 성곽시설이다. 전라좌수영 등 육지와 해안을 잇는 요충지에 자리 잡아 역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차례 발굴 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유적의 성격이 확인됐다. 여수 석보는 106필지(7만7393㎡) 규모로 네 모서리의 각이 없는 방형(方形)으로 축조됐다. 동·서·남문 3개소의 성문을 냈고 성벽을 따라 성 바깥에 해자(壕子=성 주위에 둘러싼 못)를 설치했다. 성벽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으나 성곽 전체의 규모와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성벽에는 '求禮始面(구례시면=구례 지역 주민이 성벽에 축성을 시작한 성벽의 면)'이란 명문(銘文)이 새겨져 인근 근현에서 축성역(築城役)을 분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면형태와 부대시설의 배치, 축성 기법에서 나타나는 여수 석보의 주요 특징은 15세기 중반의 성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수 석보'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어 위주의 석보에서 출발해 점차

관청용 물자비축의 창고(倉庫)와 장시(場市=시장) 기능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유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체성부(體城部=성벽의 몸체 부분)와 해자의 잔존 상태는 양호하다. 육군 진보성(鎭堡城·각 지방을 지키던 군사조직이 주둔한 소규모의 성)으로서 전 구간에 걸쳐 첫째 단을 세워 쌓기한 점과 대형의 지대석(址臺石)을 사용한 점 등은 다른 성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보성 녹차 이렇게 만들어오** 한국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 회원들이 최근 보성 한국차박물관에서 녹차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녹차 체험객은 지난해 1만2000명, 올해 들어 5000여명 등 보성 관광산업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통일기금 모금 운동 민족화합 불씨되길”

### 고흥군, 선포 결의대회

고흥군은 지난 19일 종합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통일기금 모금 범국민 성지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천식 통일부 차관과 박병중 군수, 평화통일 국민포럼 김충배 상임대표, 한국산업개발 연구원 백영훈 원장,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 회원, 기관·사회단체장, 청각장애인,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 각층의 군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 김갑수 대표의 취지설명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통일기금환전단, 백영훈 원장 특강,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을 추진중인

김갑수 대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통일기금이 독일의 통일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2008년 8월에 통일기금 통장을 개설, 국내 최초로 통일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며 “하루에 자판기 커피값 300원을 아껴 매일 9000원씩 통일기금을 조성하자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해온 결과 올해 4월 현재까지 2200여만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박병중 군수는 “한반도 남쪽의 고흥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기금조성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고흥에서 시작된 통일 기금 모금 운동이 조국통일과 민족화합의 작은 불씨가 점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정원박람회 관광객 유치 순천에 한옥형 유스호스텔

### ‘순천만 에코촌’ 내년 2월 완공

순천시 대안리 마산마을에 한옥형 유스호스텔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2월 준공목표로 ‘순천만 에코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 에코촌’ 조성 사업은 환경부 2009년 ‘에코시티’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0년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설계해 혐오시설이었던 옛 분뇨처리장을 한옥 속

박시설 및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순천만 에코촌’은 생태환경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 커뮤니티 센터 1동 ▲각종 세미나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동 1동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에코동 4동으로 43실·124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을 방문하는 학생 및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교육 공간으로 생태관광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아파트 공사중 폭발음 주민 불안

### 광양 중동동... 관계자 발파작업 소홀

광양시 중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불감증이 심각하다. 광양시 중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기초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 관계자의 소홀로 폭발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또 공사

장 인부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주민 M씨는 “아파트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이 많았는데 강력한 폭발음이 발생해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자 관계자는 “발파공에 폭약을 넣은 뒤 모래를 채우고 발파를 하는데 주변 발파 과정중 밑에서 클랙이 발생하며 미세한 공간이 생겨 폭발음이 강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일반 발파 비용에 비해 10배가량 많은 비용을 들여 정말 진동제어 발파공법을 이용해 발파해 왔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특별감시

### 전남도 동부출장소

전남도 동부출장소(소장 양동조)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장마철 폭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산업단지 및 하천 주변지역 인근에서 폐

수 무단방류·수질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동부출장소는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인 여수산단 증방천, 남수천, 중흥천, 삼일천, 순천산단 평곡천, 광양산단 소하천, 곡성 구례 창천천, 섬진강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영기자 yjy@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예정이며, 폭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조속한 시일내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동조 동부출장소장은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영기자 yjy@

# 전 북

## “상습 침수 정읍천 준설 시급”

### 정읍시의회 의원 현장 방문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경제건설 위원회(위원장 장학수)는 최근 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면서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정읍천과 용산천, 농소 제1 산업단지 등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라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제건설위원회 의원은 “덕천교 하류부근 정읍천 저수로(低水路) 축소로 인해 집중호우시 급격한 수위가 상승하며 우수관을 따라 시가지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지형이 낮은 시가지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 추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정읍천

에 대해 2~3m 깊이로 준설하고, 준설토를 공개 매각해 세수를 확보할 것을 정읍시에 권고했다. 또 익산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황을 수차례 방문해 “토사 3만2627㎡·조경석 1만7891㎡가 반입돼 집중호우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와 익산 관리청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지난 2011년 8월 정읍 시가지 일원이 침수 피해를 입은바 있다. 경제건설위 의원들은 “시와 익산 국도청이 이미 완료된 생태하천 공사 구간은 손을 놓고 있으며, 호우피해로 유실된 공사구간만 땀질 형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시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비용·고효율의 정읍천 및 하천 하천의 저수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홍수 예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js@



**남원 신관사도 부임행차 공연단 여수공연** 남원 신관사도 부임행차 공연단이 최근 여수 엑스포 전통마당 특설무대에서 문화공연을 갖고 있다. 시민 90여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은 지난 2006년부터 6년째 상설공연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남원시 제공>

## 곰소 천일염 명품화 한다

### 부안군, 염전 배수로·바닥재 환경시설 개선

### ‘지리적 표시’ 등록 특허청에 10월 출원

부안군이 곰소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안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염전을 갖고 있는 곳이다. 부안군은 우선 곰소 천일염의 생산지내 결정지와 배수로·염수로·염전바닥재(5.6ha) 등 염전 위생·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군산 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오는 10월 중에 특허청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곰소 천일염에 대한 품질향상과 역사성을 찾고 네이밍,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군은 최근 (주)남성염업과 함께 위생적인 천일염을 공급하고 염전 환경개선을 위해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기

도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곰소 천일염은 내소사의 소나무 꽃가루가 날아와 소금의 짙을 높여주며, 다른 염전에 비해 무기질 함유량도 2~3배 많다”고 말했다. 한편 곰소염전은 곰소항 제방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조성된 간석지로 1946년부터 정부의 허가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청정해역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미세입자가 풍부하고, 맛도 풍부하다. 3월 말부터 10월까지 생산되며, 이 기간중 5~6월 소금 생산량이 가장 많고, 맛도 좋다. 곰소는 천일염외에도 부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해산물을 자연 숙성시켜 담은 젓갈로도 유명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북대 군산 캠퍼스 개교

전북대 군산-새만금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군산시 오식동동 부지에 4번째 창업 보육센터 완공하고, 최근 군산-새만금 캠퍼스 개교식을 가졌다. 개교식에는 서거석 총장을 비롯한 재정총 군산대 총장, 한우용 창업보육 센터 협의회장, 이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선정돼 모두 26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건립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도내 9개 해수욕장 수질 ‘적합’ 판정

전북 도내 9개 해수욕장의 수질이 매우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진태)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질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조사 결과 9개 해수욕장(격포·변산·상록·고사포·모항·위도·동호·구시포·선유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인·암모니아성 질소·대장균군수 등 총 5개 항목을 분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임계기사’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史庫)에 보관중이던 조선왕조실록 등을 정읍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임계기사’(壬癸記事)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전북도 문화재위원회(2분과)는 ‘임계기사’를 심의한 결과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

단, 보물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정읍출신 선비 안의와 손홍록은 왜군의 전라도 침략이 임박해오자 전주사고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겨 우골암과 은봉암, 비래암에 보관하며 370일 동안이나 지켜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js@

### 김제시 지평선 자생식물원 용역보고회

김제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문화 공간과 청소년 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한 ‘지평선 자생식물원’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지평선 자생식물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시공원형 ▲청소년 중심형 ▲체험학습형 식물원이라는 기본방향에 제시됐다. 세부계획으로는 사계절 꽃나루 감상과 경관 연출을 위한 ‘화목원’을 비롯해 들꽃원, 수생원·버드나무원, 관목원, 생명원, 치유원 등이 도입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내년부터는 임야에도 지원키로 했다. 군은 두름·염나무 지원사업 물량 조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순창군 단기임산물 사업 지원 확대

순창군이 두름·염나무 등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군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임산물(두름·재배) 소득사업은 전이나 담, 지죽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부터는 임야에도 지원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창포물 머리감고 그네뛰기 체험하고...

### 23~24일 전주 단오제

제54회 전주 단오제가 ‘에헤야~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 가세’를 주제로 23~24일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단오제는 23일 오후 7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전주부채 진상행렬, 내민·시민이 함께하는 부채 나눔행사 등이 펼쳐진다. 전주 시립예술단 공연, 미리암스 발레단의 ‘드림 오브 드림 웨이’(dream of dream way), 에스페란자의 퓨

전국악 영화음악이 단오 전야를 화려하게 수놓게 된다. 단오 풍류체험 프로그램은 전주 단오의 대표적인 행사로 창포물에 머리감기를 비롯해 전통음식인 ‘수리취떡’ 만들기, 창포 물싸움, 속묵에 오색실 뭉기, 단오 소원지 달기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그네뛰기, 후호 던지기, 단체 줄넘기 등 시민참여 한마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